

## 더 타임스 대학평가가 95위

### 2008년 세계대학 순위 (더 타임스 지)

순위	대학	국가
1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미국
2	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	미국
3	케임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
4	옥스퍼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영국
5	CALTECH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		
5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		
95	KAIST	한국

우리 학교가 지난달 8일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95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32위보다 37계단 상승한 것이다.

세계대학평가는 연구, 교육, 졸업생 고용 정도, 국제적인 전망 등 네 개의 주요 분야를 바탕으로 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동료평가(40%), 교수 일인당 논문 인용지수(20%), 교수 대 학생 비율(20%), 고용주 대학평가(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공학및정보

기술 분야 34위, 자연과학 분야 46위, 생명과학및바이오과학 분야 134위를 차지했다. 모두 지난해 49위, 86위, 166위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는 299위로, 다른 분야보다 순위가 낮았다.

서남표 총장의 2차 개혁안이 이번 세계대학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2차 개혁안을 통해 자연과학대학과 학제학부에 속해있던 생명과학과와 바이오및뇌과학과를 분리해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신설했다. 이후 자연과학 분야와 생명과학및바이오과학 분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서 총장은 글로벌 캠퍼스를 표방하며 외국인 교수의 수와 외국인 학우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주력했다. 학내 외국인 비율은 평가기준의 10%를 차지한다.

지난 3월 서남표 총장이 유럽을 방문해 우리 학교를 알리고 대학평가 심사단을 만났다. 또한, 세계연구중심대학총장회의를 비롯한 EEWS 워크숍, KAIST PAC(자문회의) 등의 대외활동이 동료평가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 타임스 지는 매년 세계 200대 대학을 선정해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각 대학이 여러 가지 사회 분야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지 비교하는 것이 세계대학평가의 목적이다. 더 타임스 지는 "세계적인 대학이 된다는 것은 정부, 고용주, 투자자, 졸업생, 학생, 입학지원자와 대학 자신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라며 세계대학 순위 발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0위권 안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있으며 지난해 5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50위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는 분야별 평가에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 43위, 자연과학 분야 31위, 사회과학 분야 33위, 생명과학 및 바이오과학 분야 40위를 기록했다. POSTECH는 188위, 연세대학교는 203위, 고려대학교는 236위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교는 5년째 1위를 차지했으며, CALTECH이 5위, MIT 9위, 아시아권 대학교에서는 도쿄대학교 19위, 칭화대학교 56위 등이 있다.

김래영 기자  
loveph@kaist.ac.kr

### 특별기획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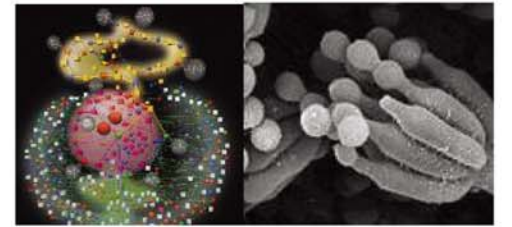
각종 대학평가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우리는 대학평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학평가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했다.

대학평가 순위에 대해 우리 학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양지원 대외부총장과 각 대학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 학술 7

항생제로도 죽지않는 박테리아가 있다. 12살의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간 슈퍼박테리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가상세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를 제어하려는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 문화 8

여자라면 누구나 한 켤레 짝은 가지고 있을 구두, 하이힐. 하이힐 속에 숨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다.



### 기획 10

당신의 여름은 어떠했는가?

인턴십 활동을 강조한 지난 여름 학기를 되짚어 보았다. 인턴십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학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로봇센터, 한의학연구원,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세 학우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넥슨의 인턴 담당자를 만나 우리 학교 학우들의 인턴 생활을 들었다.



이용훈 기자  
yonghoon@kaist.ac.kr

## 2008 동아리 문화제 'Lost 95%' 개최

###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다양한 공연, 전시와 함께

"우리가 놓치는 95%를 되찾자."

17대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 '조연'에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동아리문화제 'Lost 95%'를 개최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준비해 학우 전체의 화합을 꾀한다.

김주만 동연 회장은 "공부만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놓치는 95%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올해에는 외국인을 배려한 행사도 준비했고 퀴즈나 이벤트에 걸린 상품도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동연 공식 홈페이지(clubs.kaist.ac.kr)를 통해 오타/오류 찾기, 동아리 퀴즈대회 등의 각종 이벤트와 설문조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문화제는 학내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KECI와 이박터는 영어 공연을 연다. 각종 '동아리 AWARD'와 함께 글로벌동아리상도 시상한다.

지난 3일 시작한 동아리 방문 행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4일부터 6일까지는 그리미주아, 문학의 트랙, 별바라기 등의 동아리에서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 기간동안 여러 동아리의 길거리 콘서트도 펼쳐진다. 4일 소리모음, 5일 띠이어너레, 6일 구토스, 7일 활화산, 4~6일에는 Mindfreak의 공연이

점심시간동안 열린다. 5일 오후 8시 미래홀에서는 강적, 동틀 무렵, 스타전, 인피니트, 창작동화, 구토스의 합동 공연 'The Rock Night'가 펼쳐진다.

6일 오후 7시 미래홀에서는 이박터의 영어 연극 '누가 누구?'와 KECI의 '왕의 남자' 영어 번역판을 볼 수 있다. 마지막날인 7일 오후 8시 30분에는 학부식당에서 동아리 축하공연, 쿠폰 추첨, 경품 증정 등의 행사와 함께 동아리 AWARD가 열린다.

동아리 AWARD에는 학생처장상, 신생동아리상, 공로상, 글로벌 동아리상 등을 수여하며, 예쁜동방콘테스트 시상, 안습상 시상도 함께한다.



### 여론 14

#### 본사 사랑

07학번 오가희 원에 의해 직을 면함

07학번 김은희 기획부장에 명함

이상 2008년 11월 1일자